

MSG(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아 담백한 맛을 내며 입자마다 성분이 균일, 쇠고기 맛이 골고루 베어든다는 설명. 가격은 4,540원.

그린팩 소주 첫선

경월, 관광용도 공급

(주)경월이 '관광용 그린소주'와 '그린팩소주'를 새로 개발, 지난달 21일부터 시판되고 있다.

관광용 그린소주는 국내 최초로 원적외선 처리하여 맛과 향이 부드럽고 깨끗하며 최상급 활성탄으로 탈위 정제해 이취 잡미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광소주와는 달리 현대적이고 고급스런 녹색 사각병과 라벨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행, 낚시, 등산 등 야외용으로 간편한 그린팩 소주는 푸른 산과 푸른물을 배경으로 산뜻하게 디자인했다.

관광용 그린소주는 3백75 짜리로 출고가 6백89원70전이며 그린팩소주는 2백 짜리로 3백69원71전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 열어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올해로 제 22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서윤수)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정용)는 환경처와 한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지난 6월3일 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세계 각국이 진지하게 논의한 이래 지구환경보전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온 바, 이번 세미나도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국내외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영향평가 기법 ▲지구환경영향평가 등 세계 분야로 나뉘어 진행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국제세미나

되었는데 국가 단위의 환경정책에서부터 지리 정보체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기법, 그리고 그린 라운드·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지난 1977년이며 지난해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과 평가 기법 개발 등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인식을 국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 마련의 의미도 크다.

150여명이 강당을 가득 매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의 세부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기조 연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방향(김형철/환경처 차관)

▲제1주제 : 환경영향평가 정책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책방향(박종건/환경처 자연보전국장)

△미래환경과 환경영향평가(김귀곤/서울대 교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J.Ashley Nixon, Brian D.Clark/영국 아버딘대)

△환경영향평가와 정책과정 통합(F.Larry Leistritz/미국 북다코타대)

▲제2주제 : 환경영향평가 기법

△폐기물 매립지 선정과 관리(이승무/연세대 교수)

△수자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이상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현황과 방향(Fu Chen, Shaoxian Hong/중국환경과학연구원)

△환경영향평가와 지리정보체계(Vladimir Tikunov,

Tatiana Krasovskaia/러시아 모스크바대)

△ 환경영향평가와 분쟁해결방안 (Sachihiko Harashina/일본 동경공대)

▲ 제3주제 : 지구환경영향 평가

△ ISO 환경표준화 동향 및 대책(정영태/공업진흥청 화섬표준과)

△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책(안영재/환경처 국제협력관)

△ 지구 기후 변화(Gen Inoue/일본 국립환경연구소)

‘환경을 고려한 인쇄잉크’ 세미나 열어

인쇄문화협회, 대두유잉크 사용현황과 기술관련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쇄잉크산업에 있어서도 환경문제 해결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구미지역에서 대두유를 이용해 개발한 인쇄잉크의 사용 현황과 기술적 추이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박충일)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서)과 미국대두협회(한국지회장 전성익)의 후원, (주)동양인쇄잉크 및 대한잉크(주)의 협찬 아래 지난 6월 16일 서울 힐튼호텔 콘벤션센터에서 ‘환경을 고려한 인쇄잉크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을 자아냈다.

모두 세 부문에 걸쳐 발제 및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발제 내용 및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구미지역에서의 대두유 잉크의 사용 현황(Roger Leysen/미국대두협회 벨기에 지회 마케팅 국장)

▲ 환경보호차원에서 인쇄잉크의 기술적 추이(지성환/(주)동양인쇄잉크 기술연구소 이사)

▲ 대두유 잉크의 특성(임종학/대한잉크(주) 기술연구소 차장)

Roger Leysen씨는 “자원고갈, 공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대두유를 이용한 대체상품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대두유를 이용한 잉크나 연료는 사실 오래 전부터 개발돼 왔으나 2차대전후 석유화학제품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묻혀졌다가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경우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대두유로 만든 잉크로 신문을 인쇄하는데 잉크가 손에 묻어나지 않고 폐지 재활용도 쉬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경유 대신 매연, 이산화황가스,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은 식물성 기름을 쓰자는 움직임도 구체화돼 프랑스에서는 경유와 식물성 기름을 섞어 쓸 때 세제 혜택 등으로 가격차이를 보상해 준다고 한다.

대두유 잉크는 기존 솔벤트 잉크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비싸다는 점과 SET 건조상의 단점이 있지만 ▲저공해 ▲인쇄작업비 절감 ▲인쇄물 품질 향상 ▲인쇄작업성 우수 ▲흡수면 뿐만 아니라 비흡수면 종이도 인쇄가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음을 발제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연구회도 지난 6월 17일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콩 생산가공 및 영양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열었다. 이 심포지움에서도 Leysen씨는 <콩을 원료로 한 환경보호관련 첨단제품>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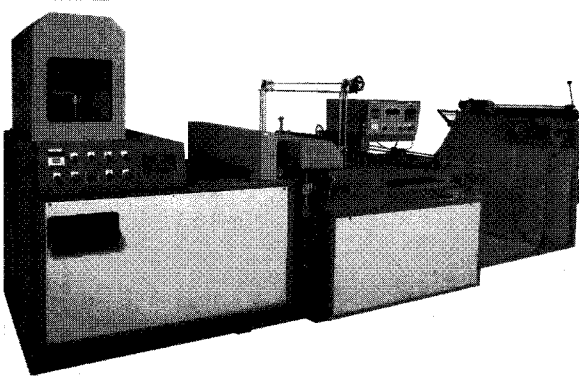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6월 16일 힐튼호텔 콘벤션센터에서 ‘환경을 고려한 인쇄잉크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전자동 쓰레기백 제조기계 개발

일성기계, 한대로 4종류 규격봉투 제작

(주)일성기계(대표 박석균)는 최근 환경처에서 확정된 네 종류의 쓰레기 봉투를 한 대의 기계로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 제조기를 개발, 지난 6월 11~15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던 제 12회 국제플라스틱고무전에 출품 전시함으로써 많은 참관인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IS-5694로 명명된 이 기계는 제대기와 3단 접지기가 같이 설계되어 있어 종래의 외국산 기계가 단일품만 생산할



일성 기계의 전자동 쓰레기백 제조기 (Model IS-5694)

수 있었던 데 비해 10, 20, 50, 100리터 등 네 종류의 봉투 생산이 이 한 대로 가능하다. 또한 종전의 제대기는 봉투의 길이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의 수동조작이 요구되고, 인쇄물 포착장치의 기계조작도 어려웠음은 물론 접착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그러나 이 쓰레기봉투 제조기는 마이티 서보모터 제대기를 장착하여 초보자도 육안으로 봉투길이 조절을 확인하면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접착 부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기계가 자동적으로 정지하게 돼 일일이 접착을 확인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평으로 두 번 접고, 수직으로 한 번 접을 수 있게 만든 3단 접지기는 봉투의 부피를 축소시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또 1매에서 20매까지 전자 카운터의 지시에 의해서 임의로 봉투 매수를 지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제대 및 접지 가능 폭은 300~750mm, 길이는 550~1,130mm, 사용 가능한 필름 두께는 0.02~0.05mm이다. 전원은 AC 220V 60HV, 메인모터는 AC 220V 1HP이다.

봉투 규격은 550, 670, 870, 1,130(mm) 등 네 종류이다. 기계의 폭은 1,500, 길이는 5,000, 이는 1,900(mm)이고, 중량은 2.5톤이다.

지난 68년에 일성기계공업사로 처음 출발한 이 회사는 그동안 제과자

동포장기, 건전지포장기, 전자동냄비절단기 등을 개발해 오며 지금까지 35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일성기계는 이번 쓰레기봉투 제조기 개발을 전환점으로 앞으로 환경관련 기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환경마크 · 과대포장상품 등 전시

한국부인회, 백화점서 자원재활용 전시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회장 임명순) 총본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자원재활용 전시회를 가졌다.

한국부인회가 올해로 네 번째 연 이 전시회는 크게 재생용품과 환경마크상품, 자원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작품, 과대포장상품 등의 전시 및 제품의 구매·사용·폐기단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 행동을 계몽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빈 우유팩을 재생화장지와 교환해주는 등 재활용품 교환코너 운영 및 환경·재생 관련 비디오 홍보물도 상영했다.

한국부인회가 전시회중에 홍보를 펼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버리는 요령>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버리는 요령

종량제 적용여부	종 류	세 부 품 목	버 리 는 요 령	
종량제 적용 (수수료 부과대상)	일반쓰레기	가정 및 사업장의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	시에서 제작공급한 규격 봉투에 담아 봉투 앞쪽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다.	
종량제 적용제외 (수수료 미부과 대상)	재활용 품	종이류	신문, 헌책, 박스류, 종이팩류	이물질 제거후 말려서 재활용에 넣는다.
		플라스틱류	병류, 플라스틱류, 물통 등	
		금속캔류	캔류, 부탄가스 용기류, 살충제 용기류 등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압축하여 재활용함에 넣는다.
		빈병류	음료수병, 각종 유리병 (농약병은 별도 수집)	이물질 제거후 재활용함에 넣는다.
		고철류	양은, 스텐류 및 기타 고철류	이물질 제거후 가능한 부피를 줄여 재활용함에 넣는다.
연 단 제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다.	
수수료 부과대상	대형폐기물	장농, 세탁기, 냉장고 등 관급규격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것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하여 집 앞에 내놓는다.	